명인 솔루션 모의고사 해설지
〈 국어 영역 〉

정 답									
1	④	2	③	3	③	4	②	5	①
6	②	7	②	8	③	9	①	10	④
11	③	12	⑤	13	①	14	⑤	15	②
16	①	17	③	18	⑤	19	③	20	④
21	⑤	22	⑤	23	③	24	②	25	⑤
26	③	27	①	28	⑤	29	⑤	30	③
31	④	32	⑤	33	④	34	⑤	35	⑤
36	④	37	⑤	38	①	39	④	40	④
41	②	42	③	43	④	44	⑤	45	④

1. 화법

[정답해설]

④ 문제점은 봉사 활동의 자발성이 없다는 것인데, 해결책을 의무화하면 오히려 문제와 해결이 모순됩니다. 그렇기에 정당한 지적입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시간의 완급을 조절하였고, 매체도 활용하였으나 완급 조절을 '위해' 매체를 활용한 것은 아닙니다.

②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개념 정의를 내리지도 않습니다.

③ 매체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또한 반면교사는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보고 고친다는 것인데 외국의 사례는 잘못된 사례가 아닙니다.

⑤ 의문형 어투는 사용하였지만, 이를 통해 청중이 이 문제를 공론화(대중에게 알리기를)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배경 지식을 묻는 질문일 뿐입니다.

2. 화법

[정답해설]

③ 봉사 활동을 보는 것이 신체 면역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면 이러한 봉사 활동은 하는 이에게, 보는 이에게도 긍정적 영향이므로 남을 돕는 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A는 봉사 활동 의무화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② 남을 돕는 행위는 신체의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지만 이를 통해 보수를 받지 않는 봉사 활동의 문제점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④ A, B는 봉사 활동의 신체적 효과를 언급한 것이지 봉사 활동의 일회성과는 무관합니다.

⑤ 봉사 활동을 하면 면역기능이 좋아지는 것이지, 신체적 기능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면역기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3. 화법

[정답해설]

③ 봉사 활동 용어의 문제는 지적했지요. 하지만 이를 통해 현실에 걸맞은 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이 아니라, 봉사 활동을 할 때 지니는 마음가짐, 태도에 대해 지적한 것입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윗글과 보기 모두 형식적인 봉사 활동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② 〈보기〉에 보면 2문단에 학부모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나옵니다.

④ 사회 복지 계열의 직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책자를 배부하고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⑤ 화법은 여러분이라는 호칭어와 비격식체(해요체 등), 불필요한 언어(음…)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위의 작문에서는 그러한 성향이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4. 화법

[정답해설]

② 의료 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확대와 의약품 기탁의 부담 정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의약품의 취급을 단체에서 다루고 있으니 일반인의 다음과 같은 반응은 타당합니다.

③ 방송을 들어서 지원받고 싶은 단체가 늘고, 반면 의약품은 한정되어 있다면 의약품은 균형 있게 배분되는 것이 옳습니다.

④ 의약품의 유통 과정이 관리될 때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추론 가능합니다.

⑤ 다른 지방 자치에서도 유추 적용하여, 검토 가능한 내용입니다.

5. 화법

[정답해설]

① 지문 중,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정비나 의료 전문 인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군요.(답변 해석) 끝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취지는 밝혔지만 취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③ 유사한 질문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④ 답변에 의문을 제기한다기보다는 진행자는 2004년 실시 사례를 들어 널리 확산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의문에 대한 실제 사례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⑤ 속도, 완급 조절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6. 작문

[정답해설]

② 개인적 선호를 사용한 것이지요. ‘취향의 반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그림이 풍속화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③ 작품의 인상적인 부분들을 포착하였습니다.

④ 과제 수행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⑤ 조선 시대 서로 다른 계층의 삶을 생생히 그려내는 것이 이 그림의 의의입니다.

7. 작문

[정답해설]

② 작문 과제에서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장면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2번 선지는 타당합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니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③ 인상 깊은 부분들을 포착해서 설명한 것이므로 통일성에 저해되지 않습니다.

④ ‘앞에 두다’가 오히려 적절하므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⑤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이유와 결과 혹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때문에’가 아니라, ‘이처럼’ 등의 접속어 사용이 적절합니다.

8. 작문

[정답해설]

③ 젊은이들이 ‘느림’을 추구한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정신없이 참깨를 연이어 터는 ‘나’의 모습에서 착안 가능합니다.

② 정신없이 참깨를 연이어 터는 ‘나’를 현대인으로 생각한다면 착안 가능합니다.

④ 문제점이 성급한 현대인이므로, 해결 방향으로 차근차근 순서를 밟자는 것은 적합합니다.

⑤ 해당 관용적 표현은 모두 성급하지 말고, 천천히 순리대로 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이 선지 역시 타당합니다.

9. 작문

[정답해설]

① 국내 인터넷 이용자 현황에 대한 정보는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⑤ 괄호 안의 세계 순위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10. 작문

[정답해설]

④ 지주는 소수 집단입니다. 그렇기에 B가 적합합니다. 나아가, 매년 증가한 D가 소작농입니다. 또한, 자작농업보다는 자·소작이 더 많으므로 자작농이 A, 자·소작농이 C입니다.

답 ④

11. 문법-표기

[정답해설]

③ 만두+국(명사+명사) 구조는 통사적 합성 구조입니다. 또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면 '만둣국'이라고 써야 하겠지요.

답 ③

[오답피하기]

① '해님'은 '햇님'이 아니라, 해님입니다. 기억하세요. 파생어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갈 수 없답니다.

② 둘 다 한자어이므로 총무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④ '장마+비'의 구성은 1, 2단계 및 3-1단계를 만족시키므로 '장맛비'라고 쓰며, 이는 통사적인 합성법을 따르는 단어들입니다. 따라서 [장마삐]라고 발음되는 것이 맞습니다.

⑤ '허드레+일' 구성은 1, 2, 3-3단계를 만족시키므로 '허드렛일'이라고 씁니다.

〈참 고〉

합성법에 의한 단어의 형성

1) 합성법의 유형

① 통사적 합성법 : 우리말의 일반적 단어 배열과 같은 유형의 합성. (명+명, 관형어+명, 주어+서술어, 부사어+서술어 등)

예 돌다리, 작은형, 힘들다, 앞서다

② 비통사적 합성법 : 우리말의 일반적 단어 배열에 어긋나는 합성. (용언의 어근 + 명사)

예 묵밭(묵은 밭), 늦더위(늦은 더위), 부슬비, 날뛰다, 굳세다

[참고] 우리말에서 조사는 생략이 가능하나 어미는 생략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미가 생략되면 비통사적 합성어가 된다.

2) 합성어의 의미상 갈래

① 대등관계 : 두 단어나 어근이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대등한 자격으로 연결된 말.

예 말+소 〉 마소, 높푸르다, 오가다

② 종속관계 : 두 단어나 어근이 본래의 의미를 가지되, 서로 주종 관계로 연결된 말

예 국+밥 〉 국밥, 소나무, 돌다리, 돌아보다

③ 융합관계 : 두 단어나 어근의 뜻이 없어지고 하나의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말.

예 밤+낮 〉 밤낮(늘), 춘+추(나이), 세+월(시간), 광+음(시간), 돌아+가다(죽다)

12. 문법-표현

[정답해설]

⑤ '입혔다'도, '입히었다'도 직접인지 간접인지의 중의성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중의적 표현을 해소하려면, '입게 했다.'로 고쳐야 간접 사동을 의미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보이어지ㄴ다'이므로, 이중피동입니다.('-이-', '-지-')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② '차이어지었다'이므로 '-이-', '-지-' 이중 피동입니다. 채었다는 '차이었다'의 준말이므로 잘 고친 것입니다.

③ '믿기어지지'는 '기'와 '지' 이중피동 구조입니다. '믿기다'로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④ '묻히어지ㄴ'은 '-히-', '-지-' 이중피동 구조입니다. '묻히ㄴ'이 정당합니다.

13. 문법-음운

[정답해설]

① 세 음운 모두 파열음이니 [-비음성]이 맞습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ㅇ,ㄴ,ㅁ은 [+비음성]입니다. 하나의 부류로 형성되네요.

③ ㄴ,ㅁ은 [+비음성]입니다. 즉, 비음의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④ [+양순성]입니다. 둘 다 입술소리입니다.

⑤ 환경음과 적용 받은 후의 음은 모두 [+비음성]으로 통일됩니다. 비음성을 기준으로 부류 형성 가능합니다.

14. 문법-품사와 문장성분

[정답해설]

⑤ 관형어라고 해서 모두 관형사가 아니며, 관형어라는 자리에는 동사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문제입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작은'의 문장 성분은 관형어가 맞습니다. 관형사는 아니고 형용사입니다. 팁으로 알아 두세요.

② '모든, 온'도 역시 수 관형사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③ '나의'는 관형어가 맞습니다.

④ '살던'은 꽃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을 수식합니다.

15. 문법-고전문법

[정답해설]

② 둘의 형태적 차이는 앞말이 둘 다 모음으로 끝나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샤', '-시'의 차이는 뒷말의 모음 유무로 결정되는 것도 알아두세요.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의 '이'는 주격조사, ㉡의 '-이-'는 서술격 조사의 어간이므로 다릅니다.

③ '-샤', '-시' 모두 주체인 '육룡'을 높이는 데에 쓰이고 있는 주체높임 어미입니다.

④ 현대어와 비교해보면 쉽게 '불휘'에 주격 조사가 없음에도 주어로 해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ㅐ'는 흔들리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사격조사입니다. '젼차로'의 '로'도 역시,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16. 독서-사회

[정답해설]

① 외환 시장에서 공급 곡선이 일정할 때, 외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며, 환율을 하락합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화폐 가치는 상승할 수 있지요.

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 시장에서 자사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므로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④ 무역 이익을 위해 엔화나 위안화를 의도적으로 절하시키는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⑤ 환율이 상승하면 외제차를 사려면 많은 원화가 필요하므로 한국 시장에서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며, 해당 상품의 수요 역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17. 독서-사회

[정답해설]

③ 제품 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환율, 그리고 그 환율에 영향을 주는 외화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이며 이들이 한국, 미국의 사례와 더불어 나와 있습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화폐의 기원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② 대상의 변화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④ 환율에 대한 일반적 시각이 맞지 않음을 설명한 부분은 없습니다.

⑤ 대상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적이 없으며, 논의의 불필요성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18. 독서-사회

[정답해설]

⑤ (갑국 통화/미국달러)÷(갑국 통화/100엔)을 하면 됩니다. 그럼, 미국 달러에 대한 엔화의 환율이 나오는데, 분자는 올라가고 분모는 내려가므로, 환율이 상승했다고 보아야 하며, 이럴 때에 화폐 가치는 하락하여 수출 경쟁력에 이득이 됩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달러와 비교할 때, 환율이 상승하였기에, 갑국의 화폐 가치는 하락할 것입니다.

② 미국 시장에서 갑국의 경쟁력은 점차 높아질 것입니다.

③ 엔화와 비교할 때 환율이 하락하였기에, 갑국의 화폐 가치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④ 일본 시장에서 갑국의 경쟁력은 점차 낮아질 것입니다.

19. 독서-예술

[정답해설]

③ 예술 애호가, 현대 예술 비평가, 미적 형식주의자, 루시 리파드 등 다양한 견해들과 그 견해의 의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대상을 위한 이론의 성립이 꼭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② 이론이 분화하지도 않았고 시대별로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④ 각 주장들에 대한 절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⑤ 미적 대상의 한계를 서술하지는 않았습니다.

20. 독서-예술

[정답해설]

④ 세라노의 작품은 현대 문명의 종교가 어떤 식으로 상업화시키는지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리파드가 언급하였기에 적절한 진술입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형식주의자들은 의미에 별로 관심이 없지요.
② 예술 애호가들은 작품에서의 아름다움을 동경합니다. 주제에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③ 세라노가 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것이 아닐 것이라고 리파드는 추측하지요.
⑤ 현대의 예술 비평가들과 리파드 모두 선악의 대립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21. 독서-예술

[정답해설]

⑤ 〈보기〉의 작품은 극단적 순간에의 인간의 폭력성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미적 형식주의자들은 작품의 형식에 관심에 있으므로 구성에 주목할 것입니다.
② 예술 애호가들은 정신적인 내용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③ 루시 리파드는 현대적 의의를 강조하는 평론가이니 해당 선지는 타당합니다.
④ 루시 리파드는 형식과 현대적 의의를 모두 고려합니다.

22. 독서-과학

[정답해설]

⑤ 마지막 문단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뇌의 역할이 아니라, 세로토닌 신경 세포의 범주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요.
② 신경 세포의 내부의 형성 과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세로토닌 신경 세포의 역할이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③ 세로토닌 신경 세포의 한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④ 자기 수용적 태도와 본 지문은 관련이 없습니다.

23. 독서-과학

[정답해설]

③ 2문단에 분명히 세로토닌 수용체와 결합하지 않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모두' 흡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세로토닌 자기 수용체 수가 증가하면 개인의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기에 관련성이 있습니다.
② 세로토닌 신경 세포는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고 방출하는 세포라고 1문단에 나옵니다.
④ 2문단 첫 문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⑤ 세로토닌 재흡수 비율이 높다면 우울증이 유발될 수 있다고 2문단에 나온답니다.

24. 독서-과학

[정답해설]

② 세로토닌 재흡수 비율이 억제되면 활성화가 잘 된다는 것이니 평상심을 되찾을 수 있겠지요.

답 ②

[오답피하기]

① 세로토닌이 재흡수된다면 근심이나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울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재흡수 비율이 적어야 합니다.
③ 지속적인 자극으로 인해 자기 수용체 수가 적은 상태가 되고 이를 통해 세로토닌 신경 세포가 활성화되어 평정심을 찾는 것입니다. 인과 관계가 어긋나 있으며, 자극이 줄어들면 자기 수용체 수는 오히려 늘어나게 됩니다.
④ 세로토닌 자기 수용체가 많아지면 오히려 충동적 성향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3문단을 참고하세요.
⑤ 세로토닌 수용체와 결합하는 세로토닌의 수가 늘어난다면 활성화가 잘 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평정심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5. 독서-인문

[정답해설]

⑤ 이 글의 핵심입니다. 파라오가 신으로 간주된 이유 및 전제 정치 등이 관계 사업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농업 생산량의 확대가 관료 제도의 발달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선후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② 파라오의 측정법은 오히려 평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신성한 능력을 과시하는 데에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③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④ 범람하는 시기를 오히려 피해야만 합니다.

26. 독서-인문

[정답해설]

③ 〈보기〉에 등장하듯 이집트의 발전사는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며 이는 변칙적 발전론이므로 일반적인 정치 발전사와는 다릅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 파라오에게 부정적이었다는 점은 찾기 어렵습니다.

② 〈보기〉와 관련이 없는 평가입니다. 현상이 일어난 과정을 명시해야한다는 것은 〈보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④ 이집트의 생산 양식이 민주주의적 정치 체계를 방해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배척해야한다는 주장을 〈보기〉에서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⑤ 종교의 다양성이 특정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성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27. 독서-인문

[정답해설]

① 괄호 앞을 보시면 백성들에게 안전과 풍요가 보장되었기에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따랐다고 나옵니다.

답 ①

28. 독서-인문

[정답해설]

⑤ '인공적으로'에서 '으로'는 격조사입니다. 격조사가 붙어 있으므로 '인공적'은 명사입니다. '세계적'은 '이다'라는 조사 앞에 등장하므로 명사입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인공적'은 '조형미'라는 명사를 수식하므로 관형사입니다.

② '합리적'은 '태도'라는 명사를 수식하므로 관형사입니다.

③ '비교적'은 '쉽다'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므로 부사입니다.

④ '가급적'은 '적다'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므로 부사입니다.

29. 독서-기술

[정답해설]

⑤ 위 글에는 특정한 이론이 있지는 않습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터치 스크린과 기존의 입력 장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② 저항막, 정전용량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③ 2문단에 저항막 방식의 사용례가 나와 있습니다.

④ '터치스크린은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입력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화면에 나타난 문자나 버튼 등의 위치에 사람의 손 또는 펜과 같은 물체가 닿으면 그 위치를 파악해 특정한 기능을 처리하는 화면이다.'라고 정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30. 독서-기술

[정답해설] (가)는 정전용량 방식이고, (나)는 터치 패널 내부의 방식이 아닌, 외부의 다른 부품과의 결합을 통해 투과율을 높인 방식입니다.

③ 정전용량 방식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가 오히려 터치 패널 내부의 기술 방식이고, (나)가 터치 패널과 다른 부품 간의 결합 방식입니다.

② 가격이 싼 것은 저항막입니다. 정전용량은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나와 있습니다.

④ 일체화가 되면 투과율은 높아집니다.

⑤ (가) 제품이 정전용량이니, 당연히 정전용량 방식보다라고 비교할 수 없겠지요.

31. 문학-현대운문(2017 수능특강 연계)

[정답해설]

④ 두 작품 모두 물, 불의 심상을 바탕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연쇄법이 두 작품 모두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② (나)에서는 극복 의지도, 단호한 어조도 없습니다.
③ 과거에서 현재로 다시 과거로 바뀌어야 하는데, (가), (나) 모두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⑤ (가)에는 토속적인 말투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32. 문학-현대운문(2017 수능특강 연계)

[정답해설]

⑤ 물이 합쳐져서 바다가 되고, 그 바다의 상승 버전인 하늘은 지향적 세계 자체입니다. 그 지향적 세계로 오라는 것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희망과 관련이 있지요.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생명력이 상실된 공간이지 그리움과 추억과는 무관한 공간입니다.
②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맞지만, 실망과 후회의 감정이 아니라 기대감이 드러나지요.
③ 불타는 것은 현실적 상황을 의미합니다.
④ 회의적인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문맥을 통해 만 리 밖이더라도 보겠다는 의지로 해석함이 옳습니다.

33. 문학-현대운문(2017 수능특강 연계)

[정답해설]

④ 이 시에서 불빛과 강은 모두 유사한 정서, 즉 '한스러움'을 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화자와 친구와의 갈등을 유발하지도 않습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첫사랑은 시작점이므로 '산골의 물소리'와 대응할 수 있지요. 적절합니다.
② 바다가 최종 도착지이므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므로, 무상감으로 인식될 수 있답니다.
③ 마지막은 '한계'를 의미하며 이것은 한의 정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⑤ 바다가 강의 모임이라면 모든 존재의 장소이며, 그것은 누구나 소멸한다는 보편적 유대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보기〉를 통해 추론 가능합니다.

34. 문학-고전산문(2017 수능특강 연계)

[정답해설]

⑤ 대화, 행동을 통해 심청의 슬픔과 부인의 위로, 그리고 심현의 슬픔 등이 모두 드러나고 있습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지도 않고, 갈등을 중재하지도 않습니다.
② 장면이 잦게 변하지도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장면의 전환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③ 주인공의 정해진 운명이 누군가의 발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④ 과거와 현재가 왔다갔다하고 있지 않지요.

35. 문학-고전산문(2017 수능특강 연계)

[정답해설]

⑤ 심청이와 바리공주는 모두 고난 이후의 기쁨을 이미 알기에 두려움 없이 자신의 세계로 간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도 지문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심 봉사 집 역시 심청이가 태어나기 전에 사이좋은 집안 상태이며, 〈보기〉의 어비대왕의 나라 역시 바리공주가 태어나기 전 안정적인 상태이므로 맞습니다.
② 심청이의 탄생 후 곽씨 부인이 죽고, 바리데기가 버려지므로 대왕부부가 천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③ 심청이는 인당수에 몸을 던짐으로, 바리데기는 지옥에 다녀옴으로써 효와 희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④ 바리공주는 초월계인 지옥에서, 모진 고진 고통을 겪고, 심청은 초월계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36. 문학-고전산문(2017 수능특강 연계)

[정답해설]

④ 슬프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음이 '애이불비'입니다. 그러나 지금 심현은 자신의 슬픔을 표출하고 있지요.

답 ④

37. 문학-고전운문(2017 수능특강 연계)

[정답해설]

⑤ (나)는 '십장' 등은 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는 그러한 수적 표현이 등장하지 않지요.

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의 '무심'은 여기서 욕심이 없는 경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② '내 엇디ᄒᆞ리잇고', '내 엇디 하리라' 등의 반복이 드러나 있습니다만, 영탄적 표현과 궁금증 해소는 관련이 없습니다.

③ 각각의 시어에서 본래 있던 공간에서 떠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란 없습니다.

④ (가)에서 시구의 반복이 있습니다. AABA의 율격구조를 사용하고 있지요.(살어리랏다, 우러라, 가다가 등의 반복이 드러나 있습니다.)

38. 문학-고전운문(2017 수능특강 연계)

[정답해설]

① 〈보기〉의 참새는 늙은 홀아비의 기장을 수탈하고 있습니다. 윗글의 제세현을 바란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좋지 못하다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이 둘을 연결시키면(가정) 세상의 혼탁한 원인이 참새와 같은 수탈자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답 ①

39. 문학-고전운문(2017 수능특강 연계)

[정답해설]

④ 〈보기〉에서는 분명 담박한 맛을 아는 이가 별로 없다고 한탄합니다. 고로 4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세상은 붉은 먼지라는 것은 (나)의 시 본문에 있으며, 〈보기〉의 화자 역시 세속적 삶의 태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② 이욕의 문을 막지 않은 이들을 진주를 캐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정당하며, (나)의 화자 역시 미련이 남아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③ '제세현이 없으랴'라는 것은 세상의 혼탁함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⑤ 결국 선택한 지점은 자연이므로 맞는 선지입니다.

40. 문학-현대산문(극)

[정답해설]

④ 처음에는 극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던 김시향이 점차 극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② 말줄임표는 있지만 이것을 통해 소년과 김시향의 갈등의 해소도 아니며, 양자 간의 갈등이 있지도 않습니다.

③ 조당전이 책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지 여부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책을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책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의 유무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⑤ 나귀와 임금이 쫓겨난 이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41. 문학-현대산문(극)

[정답해설]

② 미궁의 문은 대상에게 다다르게 하는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당나귀에 올라타면 부인과 나는 영월행 일기의 내용을 알게 된다고 말하지요. 즉, 당나귀는 책의 내용의 진실을 알게 하기 위한 매개적 역할을 합니다.

답 ②

42. 문학-현대산문(2017 수능특강 연계)

[정답해설]

③ '-ㄴ다'의 표현, 죽지 잃은 하얀 새의 표현 등을 통해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오답피하기]

① 인물의 그리움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의 서희의 모습을 비교했을 뿐이지요.

② 작중 인물은 극 중의 인물인데 서희나, 길상이나 여타 인물이 주인공의 앞날을 예고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품 밖 서술자가 주인공의 앞날을 예고하지요.

④ 동시 사건의 병렬 배치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병렬 배치면 동 시간의 사건이 나란히 와야 합니다. 윗글은 사건이 차례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⑤ 등장인물이 권력과 사랑을 쟁취하려는 내용이 드러나 있지도 않고, 그것을 논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답 ③

43. 문학-현대산문(2017 수능특강 연계)

[정답해설]

④ 그들이 서희가 있는 마차를 바라보았다고 하여 인물 간의 갈등의 조장을 서희가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없습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③ 효과음은 실제로 입 밖으로 내는 음이 아닙니다. 단, 인물의 독백을 효과음으로 처리하면, 마치 직접적인 인용처럼 독자에게 더욱 생생하게 인물의 심리를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44. 문학-현대산문(2017 수능특강 연계)

[정답해설]

⑤ '파도'는 신분의 제약이 아니라, 그러한 제약이 풀려났을 때 길상의 환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소재입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서희의 질투가 '여관'에서 길상을 향해 표출되고 있지요.

② 헌 목도리가 옥이네 집에 있었으니 이 헌 목도리는 질투 유발의 소재입니다. 아울러, 헌 목도리로 인해서 서희가 자신의 숨겨왔던 감정을 드러내게 되지요.

③ 마차가 굴러 떨어지고, 서희가 다치는 상황으로 인해, 길상은 서희에게 애정과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④ 서희에 대한 길상의 애정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지요. 앞부분 줄거리에도 다음과 같이 등장하지요. '서희의 하인인 길상은 그녀를 정성껏 보필하지만 그녀에 대한 연민과 애정, 주종 관계에 대한 갈등 등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그녀를 향한 마음을 접기로 한다.'

45. 문학-현대산문(2017 수능특강 연계)

[정답해설]

④ 길상이 서희를 자신의 처라고 불렀다고 해서, 사건의 전개축이 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은 추론하기 어렵습니다.

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인물 간의 대화는 곳곳에 있습니다. 서술자의 개입은 둘의 심리 설명 부분과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설명에서 찾을 수 있고요. 묘사는 병실에 누운 서희의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② 회상을 하면 앞의 읽은 부분과의 연관을 따지게 되겠지요.

③ 과거의 사건은 현재의 측면에서 재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기를 보면,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끌어와서 과거와 현재를 재해석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 인간 정신을 치유케 하였다.'이라고 드러나 있고요.

⑤ 회상을 하면 서사 속도가 느려집니다. 〈보기〉에 따르면 이것은 의도적 장치로, 인물에 대한 독자의 능동적 상상을 가능케 하고, 속도를 중시하는 근대화의 논리에 반하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 **편저자** : 메가스터디 유대종 강사
○ **검토자(가나다 순)** : 권미경 강사, 강세진, 권태균, 김광운, 김혜린, 임권의, 유하연, 주현호